

자동차가 내뿜는 열기에…열 받는 충장으로 행인들

가뜰이나 더운데 차량통행금지구역 무법 통행에 시민들 짜증
보행자에게 되레 경적 울리고 밤이 되면 불법 주정차 ‘버젓이’
경찰·구청, 상인 눈치보느라 단속 외면… ‘겉고 싶은 충장로’ 무색

“차량 통행 금지지역을 보란 듯 경적까지 울리며 지나가는데도 경찰이 손놓고 있으니 다들 지나가잖아요. 가뜰이나 더운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뿜어대는 열기 때문에 더 덥네요.”

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3가 프리스비 광주점 앞. 무더운 도심 충장로를 빠르게 걸던 시민들이 뒤따르는 차량의 경적 소리에 도로 한 쪽으로 밀려나 멈췄다. 가뜰이나 무더운 날씨에 지나가는 차량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불쾌감이 치솟았다.

충장로 1가 입구 스타벅스 충장일가점 옆길부터 옛 광주충장로우체국·ACC 디자인호텔 사거리~충장로치안센터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충장치안센터 횡단보도를 건너서 충장로 5가까지 이르는 구간도 마찬가지다. 단, 인근 상점들을 위해 2t 미만 상품 운반 차량만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49조)에 따라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의 범칙금 부과 사례는 전무하다. 그토록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법을 위반해 자신들 편의만 내세우며 돌아다니는데도 경찰은 손을 놓고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차량통행 금지지역을 버젓이 지나가는 차량 옆에서 온도를 측정해보니 기온은 34.2도를 가르켰다.폭염경보 수준을 웃도는 체감온도로 가만히 서있지만 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달궈질 대로 달궈진 췌당이와 엔진에서 열기를 뿜어대는 차량들 탓에 체감온도는 순간 더 높아졌다.

이날 충장로를 찾은 배석균(29)씨는 “무더운 날 혼자 편하려고 차를 가지고 진입해 시민들을 밀어내고, 차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뿌리고 다니니 정말 찜찜함이 따로 없다”며 “심지어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도 많다. 주변에 주차장도 많은데 왜 차를 가지고 진입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가 ‘겉고 싶은 거리’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게 무색할 형편이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충장로 일대를 가로지르는 차량들이 부지기수고 밤이면 버젓이 불법 주·정차 까지 해놓는데도 단속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동구청이 상인들 민원을 이유로 ‘겉고 싶은 충장로’ 만들기를 포기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밤에는 충장로 일대가 주차장을 방불케하는데도 아무런 제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께 충장로 안길 반이비인후과 앞 40m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차량 8대가 버젓이 주차돼



충장로 일대가 밤이면 주차장으로 변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밤 옛 무등극장앞 충장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들.

시민 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코로나 19 여파로 상가 대부분이 비슷한 시각, 문을 닫는다는 점을 노리고 주차비를 아끼려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동구가 사실상 법 위반자들을 방치하고 ‘겉고 싶은 거리 만들기’ 정책을 포기하면서 내놓고 충장로 1가 입구로 진입한 뒤 도심을 관통, 4가 쪽으로 나가는 양재 운전자도 목격할 수 있다. 동구가 선거를 앞두고 상인들 민원과 표심을 의식, 차량 통

행을 제한하거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충장로 3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인들 눈치를 보느라 동구청과 경찰이 차량 통행과 불법주차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상권 자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무더운 여름철 도심 차량 통행과 불법 주·정차 등이 도심을 찾는 시민들 기분만 더 나쁘게 하니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일 오후 2시께 차량 통행 금지 구간인 충장로 3가 ACC디자인호텔 사거리를 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온도를 재보니 33.6도에 달했다.

‘광주 학폭 사망’ 가해 학생 11명 검찰 송치

광산경찰, 공동상해 등 혐의
소극적 초동수사 등 보완 지적

학교폭력을 겉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들 〈광주일보 7월 5일 6면〉이 검찰로 넘겨졌다. 하지만 수사 초기 유족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 행태를 보인 점, 고작 한 차례 방문하는 데 그

치면서 학교 실정을 파악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실효성 없는 운영 방식 등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6월 29일 학교폭력으로 고동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광주 모 고교 2학년생 A(17)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 등)로 B(17)군과 C(17)군을 구속,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또래 학생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범행 가담 정도와 횡수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B군 등 11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학교 안팎에서 A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족이 제출한 A군에 대한 괴롭힘 동영상, A군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통해 11명의 가해 학생을 특정했고 수

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 횡수와 정도, 기간 등을 구분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자식의 학교폭력 피해 동영상과 유서를 들고 찾아온 유족들에게 ‘증거를 더 가져오라’며 돌려보냈다가 소극적인 수사 행태와 민원인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도,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다고 ‘내사 종결’ 처리해 민원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개학 후 한 차례만 방문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운영 방식을 마련,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해 조속 배상 촉구 차량 시위
구례주민들 8일 소 위령제도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수해 1년을 맞아 오는 8일 소 위령제 등을 열고 조속한 국가 배상을 촉구하는 차량 행진 시위를 진행한다.

5일 구례군과 섬진강 수해 구례군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구례군 수해피해 지역민들은 오는 8일 오전 구례군 양정마을 및 오일시장 일대에서 소 위령제 등을 열고 추석 전 100% 국가 배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1년 전 수해 참사로 소 수백 마리가 숨진 현장에서 가축과 피해 농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위령제 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

주민들은 위령제를 통해 국가 재난으로 안타깝게 숨진 수많은 영혼과 고통 속에서 시름하는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달랜다.

주민들은 위령제 이후 소 먹이인 대형 사료 포대를 실은 트럭 30여 대를 동원, 구례군청~경찰서~구례 오일시장 등을 돌며 ‘추석 전 100% 국가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피해자단체 관계자는 “수해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도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단 한 톨의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지하철 파업하나

도시철도노조, 임금협상 상관없이 5대 도시 노조와 연계 입장 밝혀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이하 도시철도노조)의 임금협상이 시작되면서 자칫 광주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도시철도노조가 자체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수도권 등 5대 도시 지하철노조와 연계하겠다는 입장

을 밝히면서 사상 처음 지하철 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민주노총과 도시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사측인 광주도시철도공사와 ‘2021년 임금협상’에 들어갔다. 노조측

은 임금협상과 별개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 등 다른 5대도시 지하철노조와 연계한다는 입장을 정한 상태다. 결국, 각 지역별 노조가 자체적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기간(12일~19일)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경우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면서 강경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이들 6대 노조는 지난달 21일 공동 대의원대회를 열고 94.1%의 찬성률로 쟁의발생을 의결한 바 있다. 이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등

의 문제가 전국 모든 도시철도노조에 직면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공동 대응기로 했다.

이정수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섭 결과가 파업 찬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쪽 의견이 많은 경우 전국 연대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예상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광주지하철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나서게 된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지역민 불편도 우려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임야 661㎡, 지분매매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